

한표의 무게 느낀 '생애 첫 투표'

할아버지 나라서 소중한 한표 행사 뿌듯해

고려인 대모 신조야 씨

“첫 투표 하는 데 10년 걸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한국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광주 고려인들의 대모로 불리는 신조야(여·61·광산구)씨가 4·13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후 밝힌 소감이다. 고려인 동포 3세인 신씨에게는 이번 투표를 할아버지의 나라에서의 첫 투표였다.

그는 200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후 10년간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투표할 수가 없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선거권이 없기 때문이다. 새터민 출신 한국 남성과 결혼한 신씨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으로서 의무이자 권리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신씨는 “이전 대통령 선거 당시 영구권이 있는 사람도 투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표소에 갔다가 내 이름이 없어 돌아온 적도 있었다”면서 “이번에 국적을 취득하고 선거일을 앞두고 선거 공보물이 집으로 날아들 때부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선거권이 주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기쁜 마음에 투표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 사전투표 첫날 오전 서둘러 투표를 마쳤다고 한다.

신씨는 “내가 행사한 한 표가 고려인들의 권리 신장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 행사를 앞으로도 빠짐없이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내 한표가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 됐으면

대학생 강경민 씨

생애 첫 권리행사를 한 대학생 강경민(21)씨는 들뜬 표정이었다. 강씨는 13일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46)와 함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일곡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았다.

투표를 마친 강씨는 “내가 던진 한 표가 세상을 바꾸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꼭 투표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며 “막상 투표를 하고 나니 어른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도 주변 친구들과 투표를 독려했다. 젊은층들이 먼저 나서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주변에도 꼭 투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많다”며 “내가 선택한 결정이 후회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투표 이전부터 20대 청년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은 후보들을 위주로 살피고, 또 결정했다.

그는 “해마다 오르는 등록금도 문제지만 저와 같은 대학생들은 취직에 대한 고민으로 대학 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청년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었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이젠 진짜 대한민국 국민 된 것 같아 행복

베트남 출신 주부 응웬 씨

베트남 출신 주부 응웬 티 나이(여·31)씨는 한국 생활 8년 만에 첫 투표를 했다. 임신 8개월째인 나이씨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남편(46)과 함께 1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제2투표소인 일곡초등학교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나이씨는 난생처음 투표인자리 설레기도 했고, 긴장도 됐지만 투표를 하고 나니 진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4년 귀화했고, 지난해 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황서현이라는 새 이름도 함께 얻었다.

나이씨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막상 투표를 하려고 보니 후보자들의 공약 하나 하나를 살펴볼게 됐다”며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베트남에서의 투표 방식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고 했다.

나이씨는 “베트남에서는 아버지가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대표로 가서 투표를 했던지라 기회가 없었다”며 “한국에서와 같이 개개인이 각자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발전한 투표 방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투표함 실은 여객선 농무로 방향 잃어 해경 출동 소동

'4·13 총선' 이모저모

○~신안군 섬에서 투표함을 신고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이 바다에 낀 농무로 인해 방향을 잃어 해경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다.

13일 전남도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여객선 조양페리 2호(196t)가 이날 오후 8시11분께 신안군 도초도에서 약 2.8km 떨어진 해역에서 농무로 방향을 잃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조양페리 2호는 이날 신의도를 출발해 하의도, 장산도, 자라도를 거쳐 목포로 들어올 예정이었다. 배에는 승객 16명이 타고 있었으며, 투표함 4개가 실려있었다.

해경은 즉시 출동, 조양페리 2호를 장산도 방면으로 안전하게 인도했다.

투표소 응급환자 4명 이상

○~13일 광주 주요 투표소에서 모두 4건의 응급환자 이상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영초에 마련된 건국동 제1투표소에서 A(78)씨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광산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다리가 엉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11시14분께에는 북구 중흥초 중흥1동 투표소에서 B(여·90)씨가 투표하러 나섰다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의 도움을 받았고, 이날 오후 3시59분께에는 광산구 우산동 하남주공 아파트에 마련된 제3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 C(여·51)씨가 현기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투표용지 섞여 개표 일시중단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이 잘못 놓인 탓에 두 선거구의 투표용지가 섞여 개표가 일시 중단됐다.

13일 광주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광주 서구개표소에서 개표 관계자들은 개표에 들어간지 10분도 안돼 개표 중단을 선언했다. 서구갑인 양3동과 서구을인 화정3동의 사전투표함 위치가 서로 바뀐 탓에 분류를 위해 테이블에 쏟은 투표용지가 뒤섞였기 때문이다. 잘못 섞인 투표용지를 다시 분류하느라 20여분간 개표

가 중단됐다가 오후 7시30분께부터 재개됐다.

사전투표후 또 투표 3곳 적발

○~지난 8~9일 사전투표를 하고 선거일이 13일에 또 투표하려 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는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稱)투표'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투표 때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 일부는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투표 여부가 즉시 확인된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받아...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가 20대 총선 선거당일인 13일 오후 디도스(D-DoS,본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25분까지 약 3분간 홈페이지상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

다고 밝혔다. 다만 공격 즉시 사이버 대피소와 위원회 보안 전용장비에서 공격을 전량차단한 후 집중 관제를 실시한 결과 아무 피해 없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번 공격을 의도된 것으로 보고 즉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가해진 디도스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때도 선거 전날 밤 두 차례에 걸쳐 총 52분간 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두 명의 고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2011년 10·26 재보선 때도 선거당일을 포함 네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이 가해진 바 있다.

/연합뉴스

성적 조작 공시생 '부정의 달인'

침입·절도에 허위진단서까지 끝모를 범죄행각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시험 성적을 조작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송모(26)씨는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범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시험 응시 자체가 부정행위로 도배된 꼴이다.

경찰이 1차로 밝혀낸 송씨의 혐의는 충격적이었다. 송씨는 국가 중요시설인 정부서술청사를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내부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소 용역 직원들이 사무실 출입문에 적어 둔 도어록 비밀번호를 발견해 침입했다. 이어 PC 비밀번호 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 담당자 컴퓨터에서 성적을 조작했다.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자신이 응시한 '지역인재 7급' 공채의 지역 선발시험 격인 공직적격성검사(PSAT) 문제지를 훔친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그의 최초 범행이다. 지역인재 7급 공채에 응시하려면

다닌던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야 했다. 추천 요건 중 하나가 PSAT 모의시험 성적이었다. 송씨는 교직원용 사칭, 학원들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출제 학원을 알아냈고, 서울까지 올라와 문제지 관리가 허술함을 확인한 뒤 시험지와 정답지를 훔쳐 나왔다. 훔친 시험지를 숙지한 그는 선발 시험에서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송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토익(TOEIC)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올릴 방법을 구상하다 또다시 부정행위를 했다. 그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시험 시간을 늘려주는 혜택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거짓 약사 판정을 받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이런 덕분인지 그의 토익 점수는 진단서 제출 전에는 자격요건인 700점 아래였으나 이후 700점을 여유 있게 넘겼다.

모델 투숙女 비품 훔쳤다 '달미'



○~투숙했던 모델에서 잠을 자고 나가면서 객실에 있던 자질구레한 비품을 가방에 담아 훔쳐간 40대 여성이 경찰에 달미.

○~1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박모(여·45)씨는 지난해 10월 4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에 남자인친구와 함께 투숙해 빠져나가면서 컵, 컵 받침대, 화장지 케이스, 갠반, 비누받침대 등 5만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

○~모텔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이 주저지 주변을 탐문하고 다니다 심리적 압박을 느낀 박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순간적으로 욕심 나 모델 비품 몇 개를 담아갔는데 모텔 업주가 이를 경찰에 신고할 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khh@kwangju.co.kr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

46형, 49형 20%할인 / 65형, 69형 30% 할인

-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 14억원 (할인분양가 6억4천 ~ 9억8천만원)
-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 8억원(전세가 상승중)
-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

근린상가 NPL 매각

- 분양가 336억원(1771평), 채권최고액 330억원
- 전체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
-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

제척부지 NPL 매각

-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
-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롯데, 한화컨소시엄)
-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

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
상담 062)236-3400 · 010-2874-0999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참숯가마

24시간 OPEN!!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뼈는날 화, 목, 토, 일
- ▶ 불뼈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티니스, 25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 돼지갈비, 매콤갈비찜정식, 딱딱비정식, 솔향기정식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